

溫琬의 삶과 문학예술*

권 응 상**

<目次>

I. 들어가며	III. 온완의 문학예술
II. 온완의 삶	IV. 나가며

I. 들어가며

본고는 필자의 계속된 관심사인 기녀문인, 그 중에서도 宋代 妓女詩人 온완에 대한 연구이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중국 고대 기녀들의 문학 예술적 행위나 남긴 작품들을 통해서 중국문학사에서의 그들의 역할과 의미를 밝히는 작업을 해왔는데, 본 연구는 그 일환이다.

온완은 송대 妓女文人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으면서도 詞가 흥성한 宋代에 사는 것지 않고 시만 남기고 있는 특이한 창작편력을 갖고 있다. 송대 기녀문인의 상황을 보면 기녀시인이 22명에 61수의 시를 남기고 있고, 기녀류시인은 26명에 31수, 기녀사인은 30명에 43수, 기녀류사인은 21명에 25수 등 총 99명에 160수의 작품이 있다.¹⁾ 이 가운데 온완은 30수의 시를 남기고 있으니, 양적으로도 송대 전체 기녀 詩詞의 약

* 본 논문은 2009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한 것임.

** 대구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1) 줄고, <송대 기녀문인과 그 문학사적 성격>(《중국어문학》 53집, 2009.06.) 이 가운데 시와 사를 다 남기고 있는 盈盈, 譚意哥, 劉燕歌, 盼盼 등 네 명의 기녀와 기녀류 曹希蘊 등 다섯 명을 제외하면 실제 기녀문인은 총 94명이 된다.

19%, 기녀 詩의 약 3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시만 남기고 있는 기녀시인과 기녀류시인이 48명에다 92수의 작품이 있긴 하지만 이들의 작품은 1인당 평균 2수에 불과하고, 桂英이 4수로 온완 다음으로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을 정도니, 특정 기녀의 개별 작품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온완은 송대 ‘기녀시인’을 대표한다고 할 것이다.

온완에 대한 역대의 기록은 明代 梅鼎祚가纂輯한 《靑泥蓮花記》가 가장 종합적이고 자세하다. 이 책의 卷11 外編3의 <記藻三·溫琬>에는 淸虛子가 편찬한 온완의 전기인 <甘棠遺事>, 蔡子醇이 지은 <甘棠遺事後序>, 그리고 온완의 시 30수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 텍스트는 이 《靑泥蓮花記》²⁾가 될 것인데, <甘棠遺事>와 <甘棠遺事後序>는 북송 熙寧 연간(1068~1077)의 유명한 소설집인 劉斧의 《靑瑣高議》³⁾ 後集 卷五에도 <溫琬>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靑泥蓮花記》와 비교하면 다른 곳이 매우 많다. 청허자와 蔡子醇 역시 熙寧 연간의 사람이므로 明代에 편찬된 《靑泥蓮花記》보다 《靑瑣高議》의 기록이 더욱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靑瑣高議》에는 <甘棠遺事>와 <甘棠遺事後序>가 다른 글처럼 각각 별도의 卷에 따로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록 사이사이에 온완과 무관한 <張宿>篇이 뒤섞여 있어서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歐陽健은 이에 대해 抄錄하다가 무심결에 저지른 실수일 것이라고 했으며,⁴⁾ 陸林도 《靑泥蓮花記》의 <溫琬>은 곧 《靑瑣高議·甘棠遺事》인데, 양자를 서로 비교해보면 여러 곳에 異

2) 필자가 저본으로 삼은 것은 陸林이 校點하여 1998년 12월에 合肥의 黃山書社에서 출판한 것으로서, 이하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온완에 대한 기록은 이 책을 따른다.

3) 劉斧 撰輯, 王友懷 王曉勇 注, 三秦出版社, 2004.

4) <《靑瑣高議》考論>(歐陽健's Blog, 2006): 後集卷六의《甘棠遺事後序》, 從內容看分明是後集卷五的《溫琬》篇的續篇, 既不應分割開來置於不同兩卷之中, 更不應該在它們中間夾雜一篇與此內容無關的《張宿》, 這些都應該是在抄錄中被無心弄亂了的.

文이 있다면서 《靑瑣高議》 整理本이 《靑泥蓮花記》를 참고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으니⁵⁾, 온완에 대한 기록은 《靑泥蓮花記》를 참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외에 明代 鍾惺의 《名媛詩歸》와 清代 陸昶의 《歷朝名媛詩詞》에도 몇 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靑泥蓮花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온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없으니, 현재 한 편의 소개 글과 두 편의 관련 논문이 있을 뿐이다. 온완을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은 蘇者聰이다. 그는 1997년 11월에 출판된 그의《宋代女性文學》에서 ‘第14章 才高命薄的溫婉’⁶⁾이라는 제하로 온완의 삶과 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2000년 12월에는 陳曉藝의 석사학위논문 <命蹇情殤詩愈工—論薛濤和溫婉>⁷⁾이 발표되었고, 2005년 6월에는 陳曉藝·周茶仙의 <論宋代女詩人溫婉詩歌中美的意蘊>⁸⁾이 발표되었다. 이 세 편의 글은 온완의 생애와 시에 대해 초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두 편의 논문은 첫 번째 논문이 당대 기녀시인 薛濤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논한 점을 제외하면 동일 작자의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상의 텍스트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온완의 삶과 문학예술, 그리고 그녀가 남긴 30 수의 시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계획인데, 본 연구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우선 그녀의 문학을 형성시킨 그녀의 삶과 문학 예술적 업적 등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온완의 삶

온완의 생애는 淸虛子の <甘棠遺事>에 자세히 실려 있다. 청허자는 序

5) 《靑泥蓮花記·前言》 9쪽.

6) 武漢大學出版社(1997.11) 220-234쪽.

7) 華中師範大學 2000.12. 이 논문은 《黃石教育學院學報》 第19卷 第1期(2002년 3월)와 第2期(2002년 6월)에 그대로 전재되었다.

8) 《江西社會科學》 2005.6.

에서 友人 河內休의 부친 “惠然”의 부탁으로 온완의 傳을 짓게 되었는데, “온완은 나도 그 면목을 일찍이 알고 있고, ……온완의 몇 가지 일을 직접 취하여 차례대로 나열하였으니, 감히 더한 것이 아니다.”⁹⁾고 하여 자신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 사실에 바탕을 객관적인 기록임을 밝히고 있다. 또 청허자가 전을 지은 熙寧 연간에는 온완이 여전히 京師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기녀의 전기에 보태기 쉬운 설화적 요소는 거의 없다 할 것이다. 실제로 청허자 자신도 기녀의 전기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대체로 전기를 지어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데, 만약 글이 사실보다 빼어나면 고향 사람들의 바람과 가깝지 않을 뿐 아니라 후의 독자들도 충분히 믿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누를 끼치게 된다.”¹⁰⁾며 “非敢加焉”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기는 비교적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것이다.

전에 첫머리에 언급된 온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감당의 창기로서, 성이 溫이고 이름은 琬이며 字는 仲圭이다. 初姓이 郝이며, 小名은 實奴로서, 본래 良家의 자제였다. 아버지 逵는 遊商으로서, 致和 중에 風痺疾을 얻어 1년도 안되어 죽었다.¹¹⁾

이 기록만으로는 온완이 언제 출생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청허자가 서의 말미에 “熙寧乙巳仲冬浣日序”라고 하여 전을 지은 시기를 밝히고 있고, 또 위의 기록에서 온완의 아버지가 죽은 시기가 致和 연간이라고 했으니, 대략 그 출생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熙寧은 宋 神宗의 연호로서 1068년에서 1077년까지이고, 이 시기에 온완은 都下(북송의 도성 汴州로

9) 清虛子, <甘棠遺事·序>(《青泥蓮花記》 246쪽): 溫生, 予亦嘗識其面目, ……乃直取溫生數事, 次第列之, 非敢加焉.

10) 앞의 글: 大凡爲傳記, 稱道人之善者, 苟文勝于事實, 則不惟近鄉願, 後之讀者亦不足信, 反所以爲其人累也.

11) 清虛子, <甘棠遺事>(《青泥蓮花記》 247쪽): 甘棠娼, 姓溫者, 名琬, 字仲圭. 初姓郝氏, 小名實奴, 本良家子. 父逵, 遊商, 致和中得風痺疾, 期年破殞.

서 지금의 河南 開封市)로 이사 와서 살았다. 그런데 청허자가 서명한 乙巳年은 1065년으로서 희녕 연간에 속하지 않고, 또 서에서 “丁巳冬”에 전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으니¹²⁾, “乙巳”는 “丁巳”의 오기로 여겨진다. 정사년은 을사년의 12년 후인 1077년이다. 그리고 온완의 아버지는 “致和” 중에 풍비질을 얻어 “期年破殞” 했는데, 송대에는 “致和”라는 연호를 사용한 황제가 없으므로 “치화”는 ‘至和’의 오기이거나 피휘로 추정된다. 至和는 仁宗의 연호로서 1054년 3월에서 1056년 9월까지로서, 이 치화 연간 즈음이 대략 온완의 출생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온완은 대략 1055년 혹은 1056년경에 출생하여 20대 중반 쯤에 都下로 옮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³⁾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점점 생계가 어려워져서 온완은 鳳翔(지금의 陝西)에 있는 이모부 郭祥의 집에 맡겨졌고, 그녀의 어머니는 관사의 기녀로 들어갔다. 이모 집에 기거하게 된 온완은 이모와 이모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그녀는 “情이 부드럽고 뜻이 閑雅하였으며 어려서부터 장난이나 놀이를 좋아하지 않았다”¹⁴⁾고 했다. 또 어린 시절부터 남장을 하고 사내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수년 동안 함께 공부했던 아이들도 알아채지 못했고, 이웃들도 아들인줄 알았다고 한다. 6세 때 이미 詩書를 읽었는데 새벽까지 자지 않고 공부했다. 또 이모는 여자로서의

12) 蔡子醇의 <甘棠遺事後序>(《青泥蓮花記》 253쪽)에도 “熙寧丁巳季冬之吉”에 河南의 張洞端이 찾아와 淸虛子の 전을 보여주며 “補述”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

13) 또 陝州 夏縣 涑水鄉(今山西運城地區夏縣) 사람인 司馬光(1019~1086)이 성묘 차 고향에 왔다가 온완과 만난 일화가 있다. 두 사람이 만난 시기를 대략 유추해 보면 사마광이 王安石의 신법에 반대하다가 樞密副使로 임명되었지만 끝내 사직하고, 熙寧 三年(1070)에 都下를 떠나 端明殿學士知永興軍(현 陝西省 西安市)으로 갔다가 다음 해에 西京留守禦史臺에 임명되어 洛陽에서 《通鑑》을 편찬하던 시기로 추정된다. 온완은 14살에 모친을 따라 감당의 관사로 들어와서 기녀가 되었다고 했으니, 1070년 경은 대략 16살 혹은 17살로 여겨진다.

14) 淸虛子, <甘棠遺事>(《青泥蓮花記》 247쪽): 琬情柔, 意閑雅, 少不好嬉戲.

소양도 가르쳤는데 매우 빨리 배웠으며, 여유가 있을 때는 千家詩를 읽었는데, 그 대의를 거의 이해했다고 한다. 서법도 익혀서 경지에 도달했으니, “落筆하면 婦人體가 없고, 遵韻 또한 격이 있다”¹⁵⁾는 평가를 받았다.

이모부 곽상은 그녀의 이러한 비범한 재주에 대해 매우 우려했으니, “이 아이는 識量이 聰明하니, 만약 가르침을 그치지 않고 몇 년 간 이어지게 되면 時事에 능통하게 될 것이다. 다만 다른 뜻을 품어서 나의 가르침에 누를 끼칠까 두렵다”¹⁶⁾라고 했다. 이에 그녀의 서적을 몰수하고 다만 여자의 일만 전념하도록 했다. 그러나 온완은 시문에 심취하여 늘 몰래 암송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여자로서의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효성스럽고 친우와 화목하여 모든 친척에게 칭찬받았다. 이모와 이모부는 그녀를 친 자식처럼 대했으니, 그녀가 14살이 되었을 때 이모는 張家의 아들과 결혼시키고자 하였다. 혼담이 성사되어 날짜를 잡으려고 할 즈음 마침 河南에서 생모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 온완이 생모를 따라가지 않으려 하자 모친은 官府에 고했고, 이에 장가와와의 혼약이 취소되었다. 아마도 억지로라도 딸을 데려가기 위해 樂籍에 오른 기녀의 딸이 양가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온완은 매우 비통해하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배워서 오늘 날 조금 도리를 알게 되었는데, 모두 이모부의 가르침을 받은 덕분이다. 이모부께서는 장차 良家에 몸을 맡겨 이 삶을 끝마치라고 하셨다. 박명하여 짝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지경이 되었구나.”¹⁷⁾라고 했다. 그녀는 부득이 모친을 따라 하남으로 가서 郡府에 기거하면서 모친을 모셨다.

온완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보고 겪은 기녀들의 생활을 매우 혐오하여 관저를 떠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모친을 봉양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양가와 결혼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당시 그녀의 심정과 상황을 청허자

15) 앞의 글: 落筆無婦人體, 遵韻且有格.

16) 앞의 글: 此女識量聰明, 苟教不輟, 數年間迤邐能通曉時事. 第恐有異志, 累吾教矣.

17) 앞의 글: 宛少學讀書, 今日粗識道理, 盡姨夫之賜也. 將謂得托身于良家, 以終此生也! 薄命不偶, 一至于此.

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곧 또 이르길, “나는 일개 여자로서, 위로는 이미 功業을 이룰 수도 없고, 아래로는 또 良家에서 키나 빗자루를 받들 수도 없나니, 그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그런데 또 이름의 榮辱을 돌아볼 생각을 하면 노모로 하여금 마침내 굶주려서 죽을 곳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니, 곧 내가 비록 감개하여 자살하려해도 또한 능히 勇者¹⁸⁾는 아닌데, 다시 무슨 면목으로 지하의 선조를 뵈 수 있겠는가?”라며 누차 눈물을 떨어뜨리며 머뭇거리고는 끝내 결단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에게 뇌물을 주어 완과 합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정을 알고 보니 피할 수 가 없었다. 잠시 전 날의 생각을 하였고, 이때부터 창기가 되었다.¹⁹⁾

여기서 “전 날의 생각(前日之念)”은 부모의 은혜가 막중하며 모친은 자신이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으므로 “모친을 살려야 한다(活其親)”는 생각이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고통 속에서 그녀는 기녀가 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녀의 길로 들어선 온완은 기녀들의 “麗服靚妝”하고 “淫言蝶語”하는 생활을 대단히 혐오하였으며, 오직 독서에만 관심을 두어서 다양한 글들을 두루 암송하였다. 특히 맹자에 대해서는 더욱 정통하였는데, 어느 날 張太守가 맹자서의 어느 단을 암송할 때 온완이 즉석에서 어느 편, 어느 판본, 어느 행인지를 지적해내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張太公은 그녀가 남자라면 반드시 장원급제했을 것이라며 “계수나무 가지를 가인이 꺾도록 허락한다면 마땅히 甘棠의 女狀元이 되리라(桂枝若許佳人折, 應作甘棠女狀元)”라고 칭찬했다. 그녀는 항상 밤늦도록 독서하여 재촉을 받고

18) 《論語·子罕》：“子曰,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惧.’”

19) 淸虛子, <甘棠遺事>(《靑泥蓮花記》 248쪽): 琬一女子也, 上既不能成功業, 下又不能奉箕帚於良家, 以活其親. 而復眷顧名之榮辱爲念, 使老母竟至於饑餓無死所, 則琬雖感慨自殺, 亦非能勇者也, 復何面目見先祖於地下邪? 屢至灑涕, 猶豫終不能決. 未幾, 會有賄賂母氏求與琬合者. 知情必不可免也. 姑以前日之念, 自是流爲娼.

서야 잠자리에 들곤 했다. 또 서범에도 매우 뛰어났으니, “일필휘지하면 마치 신이 도우는 것 같았다(一揮而就, 若有神助)”고 하였다.²⁰⁾ 郡將(군수)은 온완이 총명하고 박학다재하다는 것을 알고서 官籍에 넣고자 하였으나 극구 거절하였고, 태수도 그녀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사정을 봐주었다.

甘棠郡邑은 당시 교통 요지로서 도시가 매우 번성하여 관부에도 관속이나 과객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관부에서는 遊宴이 매우 많았는데, 태수는 名公賢士들과 연회를 할 때는 항상 온완에게 시중들도록 했다. 그리고 사대부나 관리 앞에서 《맹자》를 써서 그 뜻을 풀곤 하였는데, 모두들 좋아하였다. 온완은 이처럼 박학하고 서범에 뛰어났으며 응대에 능했고 변론을 잘 했으니, 당대 명기 薛濤와 매우 흡사했지만²¹⁾ 오직 作詩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태수 張靖은 온완에게 작시를 배우라고 권고했고, 그녀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작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李白과 杜甫의 시를 애호했다. 어릴 때부터 詩書를 두루 읽었으므로 온완은 금방 작시법을 터득했는데, 어느 날 태수 앞에서 즉석에서 부시하여 크게 칭찬을 받았다. 이후에 태수는 연회 때마다 그녀에게 즉석에서 賦詩하도록 했다.

당시 재상 司馬光과의 만남은 온완의 성가를 더욱 높여주었다. 사마광은 陝(지금의 河南)人으로서, 마침 성묘하러 고향을 방문하였고, 郡將은 사마광을 연회에 초청하여 온완에게 모시도록 하였다. 사마광은 오래 전에 온완의 명성을 들었지만 서로 알지는 못했는데, 시중을 드는 기녀가 바로 그녀라는 걸 알고는 매우 기뻐했다. 그는 《孟子》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질문했고, 그녀는 겸손하게 사양하며 “저는 여자인데, 大儒를 마주하고서 《孟子》를 이야기하는 것은 ‘挾泰山以超北海(泰山을 끼고서 北海를 넘으려는 것)’로서, 그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분수를 모르는 것이옵니다.”²²⁾

20) 이상 앞의 글.

21) 陳曉藝, <命蹇情傷詩愈工—論薛濤和溫琬>(《黃石教育學院學報》第19卷 第1期 및 第2期, 2002.3/2002.6) 참고.

라고 했다. 온완은 《孟子·梁惠王上》의 “挾泰山以超北海”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겸손함을 부각시키면서도 《孟子》에 대한 해박함을 드러내었으니, 사마광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수는 온완이 재상의 칭찬을 받는 걸 보고서 기뻐하여 후사하고 더욱 총애하였다. 후에 태수는 그녀가 관저를 떠날까봐 구실을 만들어 결국 官籍에 넣었다.

온완은 이처럼 박학하고 詩才가 있을 뿐 아니라 겸손하기도 하여 기녀의 신분이었지만 교류하는 사람은 대부분 당세의 호걸들이었다. 그런데 온완의 모친은 한 상인에게 빠져서 세 달 동안이나 밤낮으로 만취한 채 황음방탕 하였다. 온완과 교류하던 몇몇 선비들은 그의 생모를 매우 혐오하여 점점 그녀 또한 멀리하였다. 그녀는 모친과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모친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결국 관저에서 도망쳐서 자신을 길러준 이모가 있는 鳳翔으로 갔다. 그러나 발각되어 다시 소환되었고, 도망친 이유를 묻는 태수에게 모친과의 일을 털어놓으면서 기녀의 신분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처연하게 호소하였다. 당시 온완은 이미 관적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중죄를 저지른 셈이었고, 모두들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태수는 도망간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오히려 기뻐하며 온완을 용서해 주었다.

다시 모친 곁으로 돌아온 온완은 모친이 잘못을 고치도록 다짐을 받았고, 모친은 눈물을 흘리며 뉘우쳐 서로 잘 지내게 되었다. 그 후에도 온완은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태수가 부르는 것이 아니면 문밖을 나가지도 않았다. 그러나 점점 호출이 잦아지면서 책을 볼 시간이 없게 되자 온완은 脫籍을 원하였고, 또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도 품게 되었다. 온완은 張家와의 결혼이 무산된 후에도 늘 양가와 혼인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온완은 이러한 생각을 태수에게 알렸지만 태수는 매우 난처해하며 들어주지 않았다. 후에 태수의 임기가 끝나 교대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태수의 허락을 받아 모친을 모시고 京師로

22) 淸虛子, <甘棠遺事>(《靑泥蓮花記》 249쪽): 復曰, “琬, 婦人也. 對大儒而言《孟子》, 挾泰山以超北海, 不量其力, 不知其分者也”.

이사 가게 되었다.

경사에 기거하면서도 외출을 하지 않고 또 사람도 거의 만나지 않았으니 접촉한 자는 겨우 한 두 명의 친구뿐이었다. 몇 년 후에 太原의 王生을 만나 사귀면서 그녀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듯 했다. 그런데 왕생은 乙卯(1075) 중에 전쟁터에서 죽어버렸다. 그 소식을 듣고 온완은 깊이 통곡하면서 부도를 만들어서 여러 날 동안 송경하며 극락왕생을 빌었으니,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처럼 장례를 치른 것이었다. 이것에서 그녀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얼마나 소망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녀의 절조를 매우 칭송했고, 이에 따라 또 한 번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온완이 태어난 시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략 至和 연간(1054~1056)이라 할 수 있는데, 온완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온완의 전을 쓴 청허자는 온완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완은 지금 아직 경사에 살고 있다.”²³⁾고 했는데, 청허자 이후로는 온완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죽은 시기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을 쓴 시기가 “丁巳(1077)冬”이고, 경사로 이사 와서 “居數年”한 후 왕생과 사귀었으며, 그 왕생이 또 乙卯(1075)에 전사했다고 했으니, 대략 10대 후반부터는 경사에서 생활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실제로 기녀로서의 삶보다는 원래 바람대로 거의 양가녀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에서 언급된 기록들을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장가와 파혼하고 모친을 따라 감당으로 갔던 14세부터 10대 후반까지 甘棠邑의 官妓로 활동했고, 그 이후에는 경사에서 조용히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Ⅲ. 온완의 문학예술

온완은 문학 예술적 재능도 뛰어났으니, 차분하고 온유한 성격에다 어

23) 앞의 글(《靑泥蓮花記》 253쪽): 琬今日寓居京師.

릴 때부터 쌓아온 학문적 바탕이 그녀의 문학 예술적 재능을 키웠다.

성격이 笙竽를 즐기지 않았고, 종일 놀러 앉아 오직 독서만 좋아하였으니, 揚雄, 孟子, 《文選》, 여러 역사 고전과 명현의 문장 등을 모두 암송할 수 있었는데, 특히 孟軻書에 뛰어났다. 일찍이 말하길, “어렸을 때 파리와 모기를 가장 꺼렸는데, 매번 讀書할 때마다 더위의 혹독함도 모두 잊고서 땀이 흘러 발꿈치까지 와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밤이 되면 곧 홑옷을 입고, 읊고 낭송하다보면 반드시 五更²⁴⁾이 지났다. 집안사람들이 재촉을 해야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이 되면 또 그러했다. …… 또 일찍이 字書 쓰는 법을 배웠는데, 매일 편지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 완이 한참 바라보다가 한번 휘두르면 곧 완성하는 것이 마치 신이 도우는 것 같았고, 이에 손가락 사이에 물이 들었다. …… 태수는 완의 명성을 익히 알아 名公賢士가 모이면 곧 그녀를 불렀다. 완이 연회에 시중을 들 때는 한 노비를 書篋과 筆硯을 휴대하고 따르게 했는데, 사대부나 縉紳을 만나면 곧 《孟子》를 써서 그 뜻을 기탁하였는데, 사람마다 그것을 좋아하였다.²⁵⁾

이처럼 온완은 다방면의 여러 책들을 읽어 박학다식 했으며, 특히 《孟子》에 뛰어났다. 또 서법도 매우 뛰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染指書는 “若有神助”의 경지에 올랐던 것이다. 그래서 “그 글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못 추천할 만한데 그것을 얻은 자는 보배처럼 귀중하게 소장하였으니 금옥과 다를 바 없었다. 染指書는 더욱 지극히 모했다.”²⁶⁾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24)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시각을 통틀어 일컬음. 곧 初更·二更·三更·四更·五更으로 나뉘는데, 다섯째 부분인 五更은 새벽 네 시 전후이다.

25) 淸虛子, <甘棠遺事>(《靑泥蓮花記》 248쪽) : 性不樂笙竽, 終日沈坐, 惟喜讀書, 揚·孟·《文選》, 諸史典·名賢文章, 率能誦之, 尤長于孟軻書. 嘗自言, “少時最忌蚊蚋, 每讀書, 輒俱忘暑之酷, 汗交流至踵, 亦弗之他顧也.” 夜則單衣, 諷誦必過更, 家人固謂, 乃略就寢, 及旦復然. …… 又嘗學寫字寫書, 每日有求寫蠟箋者. 琬熟視, 一揮而成, 若有神助, 于是染指間. …… 太守熟琬名, 會有名公賢士, 則召之. 琬凡待宴, 從行止一僕, 携書篋筆硯以隨, 遇士夫縉紳, 則書《孟子》以寄其志, 人人愛之.

26) 앞의 글(《靑泥蓮花記》 252쪽) : 其字頗爲人推許, 有得之者, 寶藏珍重, 不啻金

온완은 이러한 문학 예술적 재능으로 크게 명성을 떨쳤으니, 태수도 “名公賢士”들이 모이는 자리나 “士夫縉紳”들 앞에서는 꼭 그녀를 불러 그 재능을 과시하게 했던 것이다. 이처럼 온완은 사대부들과 학문을 주고받는 文妓였고, 태수는 온완의 이러한 능력을 그의 귀빈에게 과시하면서 호사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능력에다 온완은 또 고급 손님들을 잘 상대할 수 있는 좋은 목소리와 논리적인 언변이 있었다.

완은 談譜를 가장 잘 했으니, 매번 손님이나 친구와 자리를 마주할 때 禮貌가 雍容하고 姮娥처럼 생각이 빛났는데, 실로 천부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道義의 말이 아니거나 悠久한 말이 아니면 일찍이 그 입에서 꺼내지 않았다. 그 언어가 치아 사이에 놓여 우아하고 閒雅하며, 그 소리가 맑게 울리면서도 또 온화하고 원만하였다. 귀 기울여 들으면 또렷하여 鈞天의 음악을 듣는 것 같고 찬란히 비단 같은 아름다움이 있어서 사람의耳目에서 빛나고 빛났다. 그런데 그 뜻을 탐색해보면 추악한 것을 멀리 돌아서 끝내 예의의 마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간혹 사대부와 함께 앉곤 했는데, 비록 평소 사람들이 달변으로 추천하는 자라 할지라도 완의 말을 들으면 종종 귀를 기울이며 눈을 동그랗게 뜨게 되고, 고개를 숙이며 혀를 닫게 되고, 머리를 조아리며 옷깃을 여미게 될 따름이어서 처음에는 감히 酬答도 못한다.²⁷⁾

온완은 이처럼 “禮貌”가 천부적으로 온화하면서 반듯하였고, 또 목소리도 “清響”하고 “和而圓” 하였으니,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더욱 귀 기울이게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은 그녀가 “道義之言”과 “悠久之語”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좋은

玉. 就染指書, 尤極其妙.

27) 蔡子醇, <甘棠遺事後序>(《青泥蓮花記》 253-254쪽): 琬最善談譜, 每與賓友對席, 禮貌雍容, 綽約姮娥之思, 實天賦與自然, 而非矯強者. 然非道義之言, 非悠久之語, 曾不出諸其口. 其言語若置齒牙間, 優遊閒雅, 其音清響且和而圓. 傾耳以聽, 歷歷如聞鈞天之樂. ……聽琬言, 往往傾耳瞪目, 低首鉗舌, 縮首斂袖而已, 而不敢酬答.

목소리와 반듯한 몸가짐에다 이처럼 성현의 말씀을 인용한 도의적인 언사만을 말하게 되면 아무리 달변의 사대부라 하더라도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청허자도 “그녀를 한번 만나보았는데, 그 거동이 예도가 있고, 그 언어는 시서에 합치되어 나는 자못 감탄했다.”²⁸⁾고 했던 것이다.

당시 甘棠 “郡邑은 蜀, 秦, 晉의 땅을 관할하여 舟車와 商賈가 모이고, 금옥과 비단이 쌓이는 곳이어서 어깨가 맞닿고 수레가 부딪힐 정도였으니, 사람과 물자가 다른 주에 비해 가장 성하였다. 그리고 督司의 官屬이나 왕래하는 과객이 끊이지 않아 저자거리와 같았다. 府中에 일이 없으면 遊宴의 즐거운 날이 자주 이어졌다”²⁹⁾고 했다. 이러한 곳에서 온완처럼 문학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면서도 “談諧”가 탁월한 고급 기녀는 매우 유용했을 것이니, 太守의 총애를 받은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온완은 일반 기녀와는 달리 학문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품성과 깊은 식견까지 갖추었으니, 따라서 그곳의 郡將은 온완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官籍에 올려 官妓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온완은 “笙歌를 못하니 술잔과 안주를 갖추어 즐겁게 해드리기에 부족하나이다”하고 사양했고³⁰⁾, 태수도 온완을 총애하여 그 사정을 봐주곤 했다.

온완은 이처럼 학문적 지식도 깊고, 서법도 뛰어나며 언변도 좋았지만 유독 作詩만 하지 못했다. 이에 태수는 “歌詩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니, 따라서 군자들은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너는 이미 독서를 했는데 시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름을 남기겠는가?”³¹⁾라며 作詩를 배울

28) 淸虛子, <甘棠遺事·序>(《靑泥蓮花記》 246쪽): 及一見之, 其舉動則禮度, 其言語則合詩書, 余頗歎息之.

29) 淸虛子, <甘棠遺事>(《靑泥蓮花記》 248쪽): 然郡邑關蜀秦晉之地, 舟車商賈之輳聚, 金玉錦繡之所積, 肩摩車擊, 人物最盛他州. 而督司官屬, 往來過客, 不斷如市. 府中無事, 遊宴之樂日多繼.

30) 앞의 글: 而辭以“不笙歌, 不足以備尊俎歡.”

31) 앞의 글(《靑泥蓮花記》 249쪽): 始琬不學吟詩, 太守張公靖嘗謂之曰, “歌詩, 人之所難, 故君子莫不有作. 爾既讀書, 不學詩, 何以留名?”

것을 권고했다. 그래서 뒤늦게 작시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금방 그 재능을 드러내었다. “처음에 絶句를 배웠는데, 이미 문채가 있고 倫理를 이루었으며, …… 警句가 많았다. 關中에서 淮甸³²⁾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다투어 전송하니, 이에 또 시로써 이름이 더욱 빛났다.”³³⁾고 할 정도의 詩名을 쌓았다. 이처럼 늦게 시작한 시에서도 명성을 날렸는데, 이것은 “詩書에 심취하여, 그 맛을 깊이 알았으니 밤낮으로 묵송을 그친 적이 없었다”³⁴⁾는 어릴 때부터의 흥미와 공부 덕분이라 할 것이다. 온완은 여섯 살 때 “詩書를 가르치면 새벽이 되어도 자지 않았다”³⁵⁾고 했고, 또 “暇日誦千言”은 물론이고, 관사에서 도망쳤다 다시 붙잡혀 온 뒤에도 “手不釋卷” 했으니, 이처럼 금방 수준 있는 시를 짓게 된 것이다.

전에 의하면 온완은 600여 수의 시를 지었을 뿐 아니라 다방면의 다양한 저술을 했다.

琬에게는 詩가 거의 500 편이 있어서 스스로 하나의 시집을 엮었으나 好事者가 훔쳐갔고, 후에 계속해서 100 수를 읊었는데 분류하여 시집을 만든 것과는 같지 않았다. 《孟子解義》 八卷은 사리가 빼어나고 타당한데, 감춰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니, 돈독한 친구가 아니면 그 설을 들을 수 없었다. 그 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그 설을 다 말하여 그에 따라 해석했는데, 道에 있어서는 진실로 겸양함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 일찍이 책 한 질을 만들어 그 위에 제목을 《南軒雜錄》이라 하였는데, 그 안에 九經, 十二史, 諸子百家, 兩漢 이래의 文章, 議論, 天文, 兵法, 陰陽釋道의 요체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고금의 성패에 이르기까지 모두 차례로 엮어 넣었다. 매일 열어서 보니 해박함이 박학한 선비들을 훨씬 뛰어넘었다.³⁶⁾

32) 關中은 陝西 渭河 유역 일대를 말하고, 淮甸은 淮河 유역을 말한다.

33) 淸虛子, <甘棠遺事>(《靑泥蓮花記》 249쪽): 始學絶句, 已有文彩·成倫理, …… 多警句. 關中以至淮甸, 人人爭傳誦, 于是又以詩, 名愈盛.

34) 앞의 글(《靑泥蓮花記》 247쪽): 心醉詩書, 深知其趣, 至于日夜默誦未嘗已.

35) 앞의 글: 誦以詩書, 則達旦不寐.

36) 앞의 글(《靑泥蓮花記》 252쪽): 琬有詩僅五百篇, 自編爲一集, 好事者竊去, 後

이상의 기록을 근거로 보면 온완은 시인이자 학자였다고 할 수 있겠다. 도둑맞은 500수의 시에다 이어서 100수를 지었다고 했으니, 대략 600여 수의 시를 지은 시인이자 《孟子解義》와 《南軒雜錄》을 지은 학자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저술들은 여자로서, 더구나 기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저술들이 망라되어 있어서 학술사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니, 그래서 그녀는 “博學之士”보다 훨씬 해박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온완에게는 시만 있을 뿐 송대에 유행한 詞 작품은 없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작품을 남기고 있는 송대 일반 문인들은 대부분 시는 물론이고 당시 유행한 詞도 함께 지었다. 그런데 온완은 사 작품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를 지었다는 기록조차도 없다. 이것이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가 처음 온완을 접하면서 품었던 의문인데, 온완의 학자적인 면모를 확인하면서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녀의 독서경력과 관련이 있으니, 그녀는 6세에 이미 “訓以詩書” 했고, 기녀가 된 후에도 “惟喜讀書” 하여 《孟子》는 물론이고 揚雄이나 《文選》, 여러 역사 전적과 名賢의 문장 등을 두루 읽었으니, 전형적으로 사대부적 독서편력이라 할 것이다. 송대에 사가 유행하긴 했지만 사대부들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시가 문학의 최고 전당이었고, 사는 “詩餘”로서 酒宴의 보조적 기예에 불과했다. “詩莊詞媚”라는 말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니, 시와 사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이중적이었다. 따라서 온완은 일반 기녀들이 주연에서 하는 唱詞나 作詞 대신에 《孟子》를 논하고 역사를 논하고 시를 지었던 것이다. 온완은 원래 시를 짓지 않았는데, 태수의 권고로 뒤늦게 시를 배웠으니,

繼竊吟百首，乃不肖類成者。《孟子解義》八卷，辭理優當，秘不示人，非篤友不得聞其說。有求觀其秩者，則盡其說從而釋之，於道固無謙讓雲。……嘗爲一秩，目其上曰《南軒雜錄》，其間九經，十二史，諸子百家，自兩漢以來文章，議論，天文，兵法，陰陽釋道之要，莫不畢備，以至於往古當世成敗，皆編次第之。常日披閱，該博遠過博學之士。(필자주: “有求觀其秩者”와 “嘗爲一秩”에서의 “秩”은 마땅히 “帙”이 되어야 의미가 순통할 것인데, 오자인지 원문이 원래 그러한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태수는 온완에게 “不學詩，何以留名?”이라고 했다. 일반 文妓였다면 태수 역시 作詞를 권했을 것이지만 온완의 학자적인 풍모 때문에 “君子莫不有作”의 시를 권고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에 “於是又以詩，名愈盛”이라고 했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니, 이는 시를 배운 덕분이라 할 것이다.

온완은 이처럼 늦게 시를 배웠지만 “人人爭傳誦”³⁷⁾하는 시를 지었으니, 채자순도 “淸虛子가 琬이 詩에 능하여 驚句가 많다고 했는데, 믿을 만하다. 내가 일찍이 방문하여 완의 시를 얻었는데, 겨우 삼십 편을 얻었지만 말마다 모두 묘하니 한갓 입과 귀의 끝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³⁸⁾고 했다.

이에 따라 온완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니, 당시 達官貴人들이 모두 그녀와 만나고 싶어 하고, 그녀와 한번 만나는 것을 큰 영예로 알았다. 청허자가 경사에 갔다가 그의 친구인 西河의 張希言을 방문하여 온완의 절조를 화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장희언 역시 “驚歎且喜”하여 “長籍”을 만들어 청허자에게 주었으니,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천하의 이야기꾼 선비들이 모여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從遊蓬島宴桃溪，不如一見溫仲圭(蓬島로 놀러가고 桃溪에서 연회하는 것보다 溫仲圭를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다. 중규는 娼家の 여자로서, 외진 곳에 살면서 그 언어와 동작이 閨門의 안을 넘지 않았으며, 시야와 행동도 잠자리 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런 영예를 얻었는가? 色이 있는데다가 才도 있어서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가? 혹자는 그녀가 翰墨을 잘 하고 孟軻書에 자못 능통하며 특히 詩筆에 뛰어나다고 한다. 절조와 염치가 있고, 스스로 娼妓로 대우하지 않았다. 교유나 연회할 때에 명성 있고 높은 사람들도 대부분 그녀를 예의 있게 대했는데, 비록 선비 군자라 해도 크게 차이가 날

37) 이상 淸虛子, <甘棠遺事>(《靑泥蓮花記》 249쪽)

38) 蔡子醇, <甘棠遺事後序>(《靑泥蓮花記》 254쪽): 淸虛子謂琬能詩, 多驚句, 信矣. 予嘗訪得琬詩, 僅得三十篇, 言言皆妙, 不徒發之口耳之末云.

수 없었다. …… 또 더불어 사귀는 자도 모두 당세의 호준한 선비들이었다. 경박하고 망나니 같은 자제들에 이르러서는 모두 거센 바람의 기세에 초목이 쓰러지고 흩어지듯이 감히 결눈으로도 바라보지 못했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나도 몰래 그녀를 傾慕했다. 집안이 대대로 京師에 살았는데, 경사의 창기들이 천하에서 가장 성했고, 나는 그 문을 올라가서 살펴보지 못한 기녀가 없었다. 또 일찍이 부친을 모시고 사방을 유람하여 사방의 기녀들도 일일이 모두 그 우열을 따지고 비교하여 그 가진 것을 살펴보고 그 절조를 관찰하였는데, 중규와 같은 자는 실로 있지 아니하였다.³⁹⁾

이 글을 통해 당시 온완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장희연은 특히 온완이 외진 곳에 살면서 집안에만 있었는데도 이러한 명성을 얻은 이유에 대해 그녀의 翰墨, 孟子에 대한 식견, 詩筆 등 문학 예술적 업적을 거론하고, 거기에는 “節操廉恥”를 들었다. 이러한 “節操廉恥”야말로 다른 기녀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덕목이며, 이것이 온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한 온완의 품위를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청허자도 “하찮은 말이나 조그만 善으로도 다른 사람의 이목을 사로잡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새기게 하는 것 등은 진실로 필설로 다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혜로운 자는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 것이다.”⁴⁰⁾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39) 앞의 글(《靑泥蓮花記》 251쪽): 某聞天下談說之士相聚而言曰, “從遊蓬島宴桃溪, 不如一見溫仲圭.” 仲圭, 娼家女也, 處幽邃之地, 其言語動作, 不過閨門之內, 目顧手挽, 不出於衽席之上而已矣. 夫何以得此譽於天壤之間哉? 其以色而後文耶? 抑復有異乎? 或謂其善翰墨, 頗通孟軻書, 尤長於詩筆. 有節操廉恥, 而不以娼自待. 而交遊宴會, 名傾多禮貌之, 然雖士君子不能遠過. …… 又所與契者, 盡當世豪俊之士. 至於輕浮儂浪之狂子弟, 皆望風披靡, 而不敢側目以矚視. 其然耶? 其不然耶? 僕竊傾慕之. 家世居京師, 京師之娼, 最繁盛於天下, 僕無不登其門而觀之者. 又嘗侍親遊四方, 四方之妓, 一一皆審較其優劣, 視其所得, 察其所操, 如仲圭者, 實未之有焉.

40) 앞의 글(《靑泥蓮花記》 253쪽): 至於微言片善, 著在人耳目·銘在人心腹者, 固非筆舌能盡述, 知者其默而識之.

IV. 나가며

청허자는 전의 말미에서 온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평하고 있다.

韓退之께서 일찍이 “聖人の 道를 보고자 하면 《孟子》부터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온완은 구구한 한 창부일 따름인데도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고 자라서는 그 대의를 해석하고 궁구하였으니, 또한 사랑스럽도다. 그 베풀고 조치하는 것을 보면 시비가 분명하니 진실로 천하에 짝할 자가 드물도다. 애석하게도 그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만나 몸을 잃었으니 또한 불행하도다. 그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귀의해서는 그 절조를 지키고 이루었으니, 천하에서는 史書에나 있는 이야기라며 칭찬하는데 어찌 단지 傳에서 다 말할 수 있겠는가?⁴¹⁾

온완의 학문과 품성, 기녀로 전락한 불행한 삶, 왕생에 대한 절조 등을 종합적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청허자의 표현대로라면 그녀는 기녀의 신분이면서도 깊은 학문을 쌓았고, 시비가 분명한 품성을 지녔으며, 기녀로서 불행한 삶을 살았으나 마지막까지 절조를 지킴으로써 천하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청허자의 칭찬이 아니더라도 온완은 일반적인 기녀문인에게서 기대되는 여러 가지 예상을 넘어서었다. 문인의 삶은 그 작품 속에 용해되어 그 문학예술을 형성하는데, 특히 기녀문인의 삶은 그 문학을 강하게 지배한다. 따라서 대부분 기녀문인의 작품에는 원치 않는 기녀로서의 삶에 대한 회한과 원망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온완 역시 이러한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나 온완은 이러한 회한과 원한을 절제하고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으니, 이는 다른 기녀문인에게서는 찾기 힘든 온완의 삶과 문학예술이

41) 앞의 글: 韓退之常有言曰, “欲觀聖人之道, 自《孟子》始.” 溫琬, 區區一娼婦人耳, 少嗜讀書, 長而解究其義, 亦可愛也. 且觀其施設措置, 是非明白, 誠鮮儷於天下. 惜其生不意適, 丁多難而失身, 亦不幸矣. 使其身歸於人, 得成其節操, 天下稱道在史策也, 豈特言傳之所能盡耶?

가진 미덕이다. 이것은 어릴 때 이모 집에서 받은 유가 교육과 꾸준한 독서 경력이 그녀를 전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 온완은 생모 같지 않은 처신을 하는 모친을 끝까지 모시면서 효를 실천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예를 다하고 절조를 지켰던 것이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쌓은 학문과 인격에다 다방면을 깊이 연구한 학자로서의 식견, 빼어난 詩才, 논리적인 언변 등은 그녀를 달관귀인들도 한번 만나는 것을 영예로 여길 정도의 명성을 쌓게 하였다. 온완의 삶과 문학 예술적 재능 등을 두루 살펴볼 때 온완은 일반 기녀와는 달리 범접하기 힘든 면모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신을 관할하고 있는 태수에게도 존중을 받으며 주체적인 삶을 꾸려갔으니, 마지막까지 자신이 꿈꾸어왔던 양가와와 결혼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온완은 효와 예를 몸소 실천한 정통 유가였으며, 학술을 연구한 학자였으며, 논리적 언변을 가지 달변가였으며, 絶句를 잘 지은 빼어난 시인이었으며, 고상함과 은일을 추구한 맑은 선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梅鼎祚 纂輯·陸林 校點, 《青泥蓮花記》, 黃山書社, 1998.
 劉斧, 《青瑣高議》, 春風文藝出版社, 1999.
 鍾惺, 《名媛詩歸》(36卷), 明刻本.
 陸昶, 《歷朝名媛詩詞》(12卷), 乾隆38年刻本.
 蘇者聰, 《宋代女性文學》, 武漢大學出版社, 1997.
 王延梯, 《中國古代女作家集》, 山東大學出版社, 1999.
 王寧, 《宋元樂妓考》, 新星出版社, 2003.
 謝無量, 《中國婦女文學史》, 台灣中華書局, 1928.

- 王書奴, 《中國娼妓史》, 生活書店, 1934.
- 譚正璧, 《中國女性文學史話》, 百花文藝出版社, 1984.
- 陶慕寧, 《青樓文學與中國文化》, 東方出版社, 1993.
- 修君·鑑今, 《中國樂妓史》, 中國文聯出版公司, 1993.
- 陳曉藝, <命蹇情殤詩愈工—論薛濤和溫琬>, 華中師範大學 2000.12.(《黃石教育學院學報》第19卷 第1期 / 第2期)
- 陳曉藝·周茶仙, <論宋代女詩人溫琬詩歌中美的意蘊>, 《江西社會科學》 2005.6.
- 歐陽健, <《青瑣高議》考論>, 歐陽健's Blog, 2006.
- 權應相, <唐代歌妓與文人交感及詩風變遷>, 《南京師大學報》 2001年 第5期.
- 권응상, <당대 기녀시인의 범위와 문학사적 성격>, 《중국어문학》 38집, 2001.12.
- 권응상, <당대기녀 - 시인과 시가전파자로서의 만능 엔터테이너>, 《중어중문학》 제31집, 2002.12.
- 권응상, <송대 기녀문인과 그 문학사적 성격>, 《중국어문학》 53집, 2009. 06.
- 권응상, <송대 기녀의 문학 예술적 역할 규명을 위한 시론 - 사의 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51집, 2008.06.

<中文提要>

温琬出生于宋代至和年间, 是截至熙宁年间主要活动的妓女诗人。她虽出身于良家妇女, 但随其生母不得不沦落风尘度过并非所愿的妓女生活。她通过自幼积累的学问和通宵达旦地读书, 不仅具备了儒家的道德和人格, 其文学艺术才能也表现得非常突出, 所以在当时享有盛名。

这种自幼积累的学问和人格、深入研究的学者见识、出众的诗才和逻辑

性的言辞等使她的名声远近闻名，以至于许多达官贵人把见温琬一面视为百般荣幸。纵览温琬的人生经历和文学艺术才能等，可以看出温琬与一般妓女大为不同，应该具有盛气凌人、不可触及的面貌。所以，不仅深受所管辖太守的尊重，还维持了自由自主的生活，以至于到最后也追求与良家成婚的梦想。

所以，可以把温琬评价为切身实践孝和礼的正统儒家、研究学术的学者、具有逻辑性言辞的辩论家、善于书写绝句的出众诗人、追求高尚和隐逸的清高儒士。

주제어 : 溫琬, 송대, 기녀시인, 영물시, 애정시, 절구

